



Analyst 유승우 · 02-3773-9180 · yswbest@s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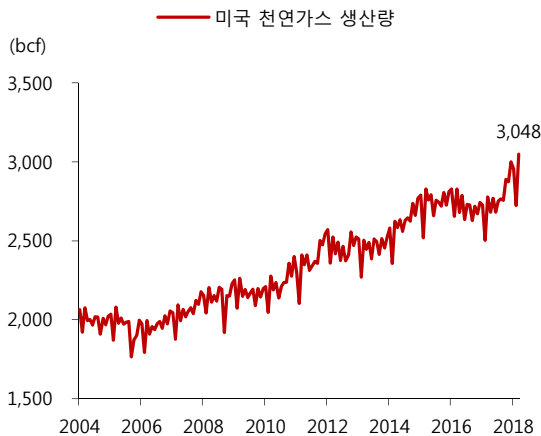
- ✓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 중임
- ✓ 한국의 국가별 LNG 수입 비중은 미국산만 증가하는 모습임
- ✓ 수입 총량 변화는 미미하기에 LNG 캐리어 추가 발주 어려움

한국의 LNG 수입 믹스 변화: 미국산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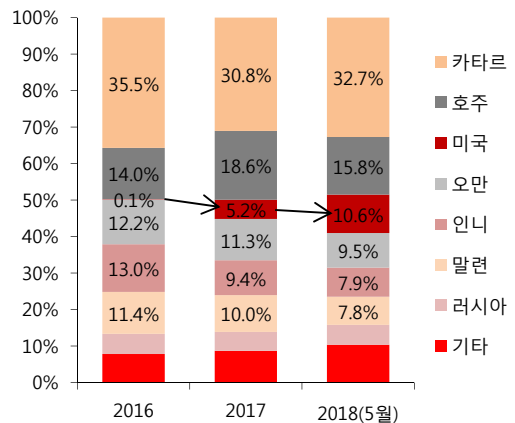
최근 미국의 가스 생산량이 원유 생산량과 더불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곤 한다. EIA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미국의 월간 가스 생산량은 3,048 bcf에 달하고 있다. 실제로 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산 LNG가 아시아로 유입되며 LNG 유관 사업의 호황을 예견하는 논의들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국가별 LNG 수입 비중 변화를 보면 미국산은 2016년 0.1%, 2017년 5.2%, 2018년 5월 누계 기준 10.6%에 달하는데 나머지 국가들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7년 대비 호주의 비중이 2.8% 감소했고, 오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수입 비중도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다. 한국의 LNG 총 수입량의 변화는 미미한 가운데 미국산의 비중만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기존 수입 라인이던 남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의 LNG 유관 사업들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조선업에 국한하여 보자면, 추가적인 LNG 캐리어의 펀더멘털 발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 중



한국의 LNG 수입은 미국산만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



자료 : EIA, SK 증권

자료 : KITA, SK 증권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